

제40회 한국보도사진전 관람 중 말씀

역사의 진보를 담은 사진을 만들어 주십시오

여러분과 저는 인연이 있나 봅니다. 오기가 쉽지 않은 행사인데, 오늘 대전 행사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쉽게 들릴 수 있게 됐습니다. 사진을 보면서의 느낌은 한마디로 “감탄했다”입니다. 순간순간을 포착한 것을 보고 기술과 예술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어렵다는 것 느꼈습니다. 놀라운 작품들이 많았습니다. 예술적 감각도 훌륭하지만 얼마나 많은 기다림과 노력이 있었을까, 또 많은 고통을 감내했을까 하는 생각해봅니다. 그런 노고가 그대로 전달됩니다.

각별한 존경심도 생깁니다. 사진을 보니까 또 지난 한해도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. 아주 반가운 사진도 있고 축스럽고 멈칫거려지는 사진도 있습니다. 여러분은 다사다난해야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겠지만, 사진을 찍히는 제 입장에서는 올해는 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올해, 또 재임기간동안 사진의 좋은 소재를 만들고 싶습니다. 제가 제일 기억하는 사진은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전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악수하고 포옹한 사진입니다. 그 사진은 많은 사람들의 불안을 씻어내고 평화의 가능성에 더 다가가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. 비용이 얼마 들었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진 한 장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.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역사를 지어나가는 사람으로서 역사의 진보를 담은 사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노력하겠습니다. 새삼 마음이 달라지고 각오가 새롭습니다. 사진은 역사의 또 다른 기록입니다.

여러분은 좀 믿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글을 쓰는 것은 선택과 주관이 있는데, 영상은 그에 비해 훨씬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것 같습니다. 때로는 여러분 관심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좋겠습니다. 좀 정확하게 선택해 주고 진보에 대한 가치를 담아서 다음 사람들도 무엇이 소중한가 알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십시오.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하십니다.